최정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지식국가론』
『오월의 사회과학』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trans. Yu Young-nan(Paramus, NY: Homa & Sekey Books)
「근대 지식국가의 이론」,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 들어가며
- 문화 담론과 정치적 주체의 형성
- 문화 담론과 주체로서의 지위
- 오리엔탈리즘의 경우
- 소프트 파워와 문화 담론
- 마치며

『세계정치 7』 제28집 1호, 2007년 봄·여름

02

문화와 권력

문화와 정치 또는 권력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쉽게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 글은 문화가 담론의 매개를 통해 권력과 연결되는 바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세기 후반 민족주의 사상의 등장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기, 확산되었던 근대 서구의 문화 담론은 집단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적 조건으로 작용해 왔고, 국제정치의 장에서는 행위자를 형성하는 조건을 이뤄 왔다. 이는 국제정치 행위자의 지위, 존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각 국의 이익 추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직결된다. 이러한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문화 담론과 권력의 특이한 사례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 담론이 국제정치에서 갈등을 벌이는 양상을 분석하고, 권력과 이해의 차원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국제정치의 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문화 담론, 권력, 국제정치, 오리엔탈리즘, 소프트 파워, 존재 차원

1. 들어가며

문화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문화'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합의된 정의(definition)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말하자면 '문화'라는 말은 지칭하는 대상체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말은 어떤 물체가 존재하고 그 존재를 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화란 말은 말과 말들의 구조에 의하여, 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화'라는 말은 근대 서구에서 독특한 철학 사상의 언어 구조의 틈에서 나타난 말이며 그런 의미에서 개념(concept)이 아니라 담론(discourse)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1] 결국 문화라는 말의 뜻은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정의되는 말이 아니라 말이 쓰이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뜻이 나타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은 '권력(power)'이라는 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권력이라는 말은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중심 개념인 양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론가들은 권력의 개념을 깊이 논하는 경우에 정의(definition)가 불가능함을 지적한다.[2]

---

1) 최정운, "정치학에서의 문화의 의미", 김광억 외,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2)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Stephen Lukes를 들 수 있을 것이다. Stephen Lukes(ed.), *Power*(N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나아가서 Stefano Guzzini의 경우 Power라는 말은 그 말을 사용할 경우 다른 뜻, 다른 의미로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e Concept of Power: A Constructivist Analysis,"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3-3, Special Issue 2005: *Facets of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pp.495-520. 이 경우 'Power'는 Concept가 아니라 Sign이라는 것이며 후자는 과학이 아니라 신화적 언어의 단위가 된다. Sign에 대하여는 Claude Lévi-Strauss, *The Savage Mind*(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를 참조. 또한 유럽 사상사에서 Sign에 대하여는 Michel Foucault, *The Order of Things*(London: Tavistock/Routledge, 1970) 참조.

이렇듯 정의가 불가능한 두 단어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이 말의 뜻이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바를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형식적으로 두 말은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영역이 없는 말로 제시되어 있다. 권력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며 문화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정치적이라는 말을 매개로 두 말은 공유점을 갖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 글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 물론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영역 밖에도 권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문화는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영역, 이를테면 '문화계(文化界)'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3] 이 경우는 권력론의 문제이지 문화와 권력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문화의 일부, 예를 들어 언어나 종교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업적이 있으나 이런 경우 또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문화'가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기로 한다. 나아가서 실제로 총체적 의미에서의 문화가 권력과 관계 설정이 되는 경우는 문화에 대한 담론(discourse)이 작용하는 경우며 이 글은 주로 문화 담론의 정치적 의미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문화 실체와 권력의 관계는 논하지 않는다. 문화가 담론의 매개를 통해 권력과 연결되는 바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문화'가 정치라는 권력의 작동과 미묘한 관계에

3) '문화' 또는 '경제'라는 '정치' 밖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논한다.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rans. Alan Sheridan(NY: Pantheon Press, 1977); *The History of Sexuality*, trans. Robert Hurley(NY: Vintage Press, 1980).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권력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

있는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목도하였다. 일제시대에 3 · 1운동이 끝난 후 당시 새로 취임한 조선총독 사이토(齋藤)는 '문화정책'을 표방하였고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 또한 1920년대를 통해 '문화운동'을 표방하고 추진하였다. 문화정책이란 이전의 데라우치(寺內) 총독 시대의 '무단통치'와 구별되는, 폭력 사용을 자제하는 세련된 새로운 스타일의 통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며 식민통치 자체를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이해하는 바였다. '문화운동'이란 당시 논쟁 거리였다. 이를 주장한 사람들은 '독립'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지 않고 비정치적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 교육 등의 영역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자는 뜻이었다. 당시 민족주의 좌파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독립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도했지만 반드시 그런 뜻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문화국가'라는 말은 패전 후 일본에서도 한 때 제기되었던 표제어였다. '문화국가'가 무슨 말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다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감에 따라 만든 말이었을 뿐이다. '문화국가'란 공히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 모습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평화적이고 아름답고, 무언가 문명적이고 격조 있는 것과 동시에 국가로서의 주권, 독립 등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되는, 그런 수준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면 주권, 독립 등의 국가적 가치를 더욱 잘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와 정치 또는 권력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쉽게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리적 연계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 관계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문화 담론과 정치적 주체의 형성

근대 서구에서 문화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된 첫 번째 계기는 18세기 후반 민족주의(nationalism) 사상의 등장이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효율과 정의가 괴리되지 않고, 인민들과 주권이 괴리되지 않는 이상적 국가의 조건으로서 국민들 간의 감성적, 문화적 통합을 강조하였다. 한편 독일의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의 국가와는 독자적인 사람들의 집단 또는 인민들의 삶의 단위로서 언어, 종교 등의 문화적 요인들을 공유하는 집단, '민족'을 발견하고 이러한 삶의 단위를 보호하고 문화적 요인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근대 서구에서 제기된 문화란 포괄적 삶의 형식으로서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이 집단으로서 공유하는 정신(精神, Geist, l'esprit)의 재현이며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성을 획득한다는 것이었다. 근대 서구는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 같은 절대 개인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조차도 집단과 특정한 관계를 갖는 존재였다. 말하자면 그는 야만인을 교화시킬 수 있는 문명사회를 대변하는 인물이며 또한 고독의 시련을 거쳐 유럽으로 복귀하여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창조된 개인이었다. 인류가 그토록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는 한 그 다양성을 구획하는 방법이 바로 문화이며 그 다양한 존재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문화였다. 말하자면 '정치적 동물' 또는 '사회적 동물'로서, 군집생활을 조건으로 하는 동물로서의 인류의 삶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문화이며 문화적 단위의 확인이야말로 안정된 정체(identity)를 갖춘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의 단위를 형성하고 확정짓는 것이었다.

어떤 많은 인간들이 공통의 문화—언어, 관습, 종교를 포함하여—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단위와 문화의 내용은 귀중한 가치로 보호받아야 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민족국가를 만들 자격이 있다는 것이 19세기 이래 유럽 민족주의의 핵심 사상이었다. 어떤 국가 내부에 독자적인 문화 집단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분리독립의 주장으로 이어지며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문화 집단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통일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화 담론들은 대중운동이나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 문화 집단의 존재와 민족국가의 형성은 결코 필연적인 관계라 할 수는 없으며 국가의 형성의 의지가 작용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집단의 성격을 결정짓는 조건의 핵심은 공통의 문화였다. 서구 열강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민족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삼아 충성스런 동질적 '민족' 만들기에 나서게 되었다.[4] 역으로 어떤 국가가 구성원들 간에 문화적 공통성이나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홉스적 자연상태(Hobbesian State of Nature)를 못 벗어난 야만국이거나 이민족을 침탈하는 제국(Empire)으로서 일반적인 '국가(the state)'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체로 인식되었다.

제3세계의 경우에도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족의 존재에 대한 주장으로 뒷받침되었고 독립국가의 형성은 공통 언어 등의 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 만들기로 이어졌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문화에 대한 담론은 고도로 민감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어느 나라의 경우나 '문화운동'은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문화 집단의 형성과 포착에는 객관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그 자체의 객관적

4) E. J. Hobsbawm은 민족은 민족주의 국가가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말하자면 민족이 형성되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존재뿐만 아니라 공통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의식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의식은 표준어의 제정 그리고 민족사 새로 쓰기 등의 대규모 지적 작업으로 이어졌다. 민족의 형성에 어떤 문화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작용하는가의 문제는 학문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오히려 공통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정치적 주장이 민족주의의 핵심적 요인이 될 것이다.

어떤 집단, 특히 종족 집단의 공통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문화 담론은 국제정치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행위자(actor) 특히 주체성(subjectivity)을 가진 행위자의 형성의 조건을 이룬다. 권력의 시각에서 보자면 문화와 문화 담론은 국제정치의 장에서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격에 대한 주장이며 권력이라는 현상의 기반 또는 조건을 형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시원정치적(始原政治的, proto-political) 영역이라 할 수 있다.

3. 문화 담론과 주체로서의 지위

국제정치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란 '있느냐 없느냐' 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국제정치의 장에서 모든 국가가 다 같은 국가가 아님은 명백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가족이나 그 외에 많은 단체의 생활에서도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구성원이 아님을 알고 있다. 법적으로 간부를 맡은 사람들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서로에서 인지되는 구성원들의 상이한 중요성은 늘 경험하는 바다. 강자와 약자의 구별과는 별도로, 성인, 현인, 어른, 아이, 소인배, '잡놈' 등의 구별이 작동한다. 국제정치에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별 외에도 '선진국', '후진국', '제3세계', '문명국', '불량 국가' 등의 구별이 작동하고 있다. 법적인 '주권 평등'은 이념이자 허구(fiction)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정치에서도 국가들은 하나하나 낱개로 인식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국가의 수가 훨씬 적었던 19세기의 국제정치사에서도 국가들은 일정한 카테고리로 묶여서 인식되었다. 현재 국가들은 '선진국', '중진국', '제3세계' 등으로 나뉘어져 취급된다. 물론 그 이에서 국가들을 묶어서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랍제국', '산유국', 'G7', 'OECD 국가', 'UN 상임이사국', '극빈국', '비동맹' 등의 분류도 나름대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며 이러한 용어들도 역사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들은 '계급적' 분류라 할 수 있다. 국가들 간에도 명백히 계급(class)이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에서 현실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급 분류는 명백히 군사력의 다소에 따른 것도 아니며, 경제적인 기준으로 분류된 것도 아니며 총체적인 '국력(national power)'의 평가와도 같지 않다. 이 구분은 총체적인 것이며 이에는 역사적 문명적인 기준도 작동하며 한마디로 문화적인 분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상하(上下) 분류는 서구 열강의 편견으로 치부되어 비판되어 왔고 이러한 분류의 핵심에는 '문명(civilization)'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단적으로 문명 관념의 일부인 '야만(barbarian)'의 관념은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혐오스런 나라, 상종 못할 나라, 가치 없는 종족으로 치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문화(culture)' 담론은 문명 담론을 희석하고 부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문화'라는 말은 '문명'에 대항하여 제시되었다. '문명'이라는 말이 18세기 후반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우월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말인데 반하여 독일인들은 19세기 초반부터 프랑스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국내적으로는 귀족들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하여 문화라는 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문명'과 '문화'는 상당히 다른 평가 기준을 갖고 있으며 문화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지적 기준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기준에 반대한 문화 담론은 서서히 19세기를 통해 이전에 야만이라고 불리던 종족들 또는 나라들을 가난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로, 그리고 지적인 존재로서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로 포함시키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담론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문화 담론, 특히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은 특히 문화 행위에 대한 기술(description)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서 일견 야만인들의 삶에 스며있는 고도의 지성을 발견하고 결국 서구의 문명국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보편적 인류임을 그러낸다. 문명 담론이 문명과 야만으로 인류를 나누는 이분법이었다면 문화 담론은 야만으로 추락한 인간들을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범주로 품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나아가서 문화 담론은 서구 제국 자신들의 사회에도 적용되자 문명과 야만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없음이 드러나는 공간이 되었다.

문화인류학은 문화란 상대주의적(relativist)인 범주로서 가치 판단, 특히 선악, 고저의 가치 판단과는 관계없는 담론 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식적인 윤리적인 주장일 뿐 현실과는 다름이 지적되어야 한다. 문화라는 말이 최초로 18세기 말에 독일 지식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모습으로 제시되었을 때 이 말은 이미 프랑스인들의 우월감에 저항하고 독일 귀족들의 무식한 권력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진정

5) Culture라는 말은 이미 서구에서 16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18세기 말 이전까지는 현재의 의미로 '敎養'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었다. 초기 Culture의 의미는 이러한 敎養이라는 의미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담론이었지 그저 다양성만을 제시하는 담론이 결코 아니었고, 이러한 의미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 말하자면 문화 담론은 문명 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사회들 간의 우열 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고안되고 확산된 것이었다. 우열의 판단이 비공식적인만큼 그 기준 또한 비공식적이며 다양하며 공식적 판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지만 세상에는 우월한 문화가 있고 열등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 문화 담론이 드러내는 바인 것이다. 많은 문화 담론이 결국은 문명 담론과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 담론과 문명 담론의 본질적인 경상(鏡像, mirror image)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문화와 문명은 다른 개념임을 누구나 잘 알면서도 논의에서 늘 서로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혼돈되어 사용되는 것은 이 두 말이 계보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준들 중에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우월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열등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확립된 나라가 우월하며,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사회가 우월하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 담론은 그 출발에서 이미 지적(intellectual)인 요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문화 담론에서 분석과 해석의 대상이 되는 문화들 간의 우열 관계 외에 일차적인 우열관계는 문화 담론의 말하는 주체와 객체의 구별은 문명과 야만의 구별을 방불한다. 문화 담론의 주체는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나 원시사회와 이 원시사회의 문화를 기술하고 해석해 내는 유럽의 지성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이다. 문명의 담론이 여러 민족들을 Y축을 따라 철저한 우열로 위치지운다면, 문화의 담론은 기본적으로 X축을 따라 다양성을 기준으로 위치지우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 담론은 Y축을 부정하지 않으며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뿐이다.

결국 문화 담론은 국제정치 행위자의 자격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지위, 존재의 수준을 결정짓고 있다. 문화 담론은 모든 민족들, 행위자들을 X축과 Y축으로 구성되는 2차원 – 최소한 2차원 – 공간에 배열하고 있으며 이 배열의 공간은 전 세계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민족들과 나라들을 계급적으로 분류한다. 물론 이러한 민족들과 나라들의 문화적 지위는 권력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민족들과 국가들의 계급적 지위는 그 나라들이 국제정치 행위, 즉 이익추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이룬다. 즉 어떤 나라가 'G7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UN의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테러국으로 지목받아야 하는지는 바로 이러한 문화 담론을 통한 민족과 국가들의 계급 분류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국가들에 대한 가치 부여는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베버(Weber)의 표현대로 국가의 '위신(prestig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국제정치 갈등에 걸려 있는 상으로서의 '가치'일 것이다.[6]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문화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개 선진국들로 제한되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시도하지 못한다. 이러한 행위는 선진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국가, 민족의 문화적 우월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주장하는 방법도 우월의 판단 분야가 된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보급한다. 특이한 점은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 문학 등을 너무나 기꺼이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히

6)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 II, Guenther Roth & Claus Wittich(ed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925.

중요한 문제로서 자신들의 지적 비판 능력은 문화 수준의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실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각종 예술, 학문 행위들을 세계적으로 시위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하고, 인권, 환경 등의 문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등 끝이 없다.

국제정치에서 이렇게 문화 담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제도적 조건이 선결 조건이었다. 무엇보다 18세기 말부터 서유럽 지역에서 등장하는 언론 기관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담론이 생산, 유통되는 조건이었다.[7] 전 세계적인 부르주아 계급의식의 제도화로서의 대중매체와 통신 체제는 문화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기능하는 조건이었다. 이들 언론사들은 담론의 유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 담론의 생산자로서의 서구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 문화 담론의 정치적 의미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850년대부터 런던에 로얄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이 건립되고, 파리에 오페라(L'Opera)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1876년 독일의 바이로이트에 페스트슈필하우스(Festspielhaus)가 개관 기념으로 그 징그러운 바그너의 오페라 4부작을 공연했을 때 이미 문화 담론의 갈등과 경쟁이 첨예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그리고 고결한 나라와 쌍스러운 나라들이 갈리기 시작했다. 서구 제국들은 각각 강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고결한 나라임을 주장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강한 나라면서 야만스러운 나라로 찍히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에 대한 불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다.

---

7)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rans. Thomas Burger(Cambridge: The MIT Press, 1989).

이러한 국가들과 민족들에 대한 판단은 권력의 행사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분류는 국제정치에서 권력 보유와 행사의 자격을 규정한다. 직접적으로 문화 담론을 통한 국가들의 분류는 동맹의 가능성을 규정한다. 국가들의 계급적 분류는 '상종할 수 있는 나라'와 '상종할 수 없는 나라'를 가르며 이러한 판단의 보편화는 국제정치 판도를 이룬다. 야만국, 테러국 등은 '상종할 수 없는 나라'이며 이런 나라들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긴 고독의 말미에서 흔적 없이 멸망하기 십상일 것이다. 동맹, 특히 장기적 동맹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는 문화 담론의 분석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문화 담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민족, 국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고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즉 국제정치에서 문화 담론을 통한 권력은 타국을 통해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부과하기도 한다. 약소국, 후진국으로 파악되는 국가는 그 처지를 벗어나 민족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국가발전, 근대화, 서구화를 추진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 헤게모니 구조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국제정치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은 소시민(petit-bourgeois)적인 행태를 취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착취(self-exploitation)의 방법으로 개발독재를 겪기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혁명을 겪기도 한다. 어떤 나라들은 이러한 전략이 좌절되었을 때 헤게모니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도전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 국제정치적 행위는 정신병리적(精神病理的) 행태를 띠기도 한다.

4. 오리엔탈리즘의 경우

문화 담론과 권력의 관계에서 특이한 경우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제시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일 것이다.[8] 이 경우는 바로 국제정치적 타자(他者)에 대한 문화 담론의 생산의 경우이며 드문 경우는 결코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오리엔탈리즘의 끝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유럽을 따라 시도한 바 있고 일본도 조선 역사를 나름대로 연구하여 이른바 '식민사관'을 형성하고 오리엔탈리즘의 아류를 이루기도 하였다. 어쩌면 원시인(primitive peoples)들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들도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띠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적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출로 그들을 비하하는 언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경우는 수없이 많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서유럽 사람들이 긴 역사를 통해 수없는 갈등을 엮었던 아랍 사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편견과 적대적인 담론을 폭로하기 위한 연구지만 이러한 유럽인의 편견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는 않는다. 이 연구는 18세기 말 나폴레옹(Napoleon)의 이집트 원정에서 비롯된 유럽 제국들의 아랍 문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양상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이다. 물론 유럽인들의 아랍권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평가절하 또는 비하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국제적 중상모략으로 인해 아랍권의 국제적 지위가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유럽 제국들이 아랍을 직접 지배하며 그들의 자치능력을 부정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우선 이 차원에서 오리엔탈리즘은 문화 담론의 국제정치에서 끊임없이

8) Edward W. Said, *Orientalism*(NY: Vintage Books, 1979).

갈등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하여 문화 담론은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향상시키려 하고 다른 적대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위를 끌어내리려는 비하의 담론이 갈등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정치의 문화 담론의 장 또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계급 갈등의 장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9] 문화 담론은 일견 점잖고 평화적인 모습을 띠지만 안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살벌한 비수들의 교환을 방불한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보여주는 문화 담론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이드의 주장에 따르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노획한 엄청난 자료들로 유럽은 아랍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이 연구의 양태야 말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과 사물』에서 보여준 근대 유럽의 지식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의 형성 과정에서 사시(Sacy)와 르낭(Renan)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은 그들의 업적이 푸코가 보여준 서구 근대의 지식(Épistemè)의 변화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아랍권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시켰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서유럽의 아랍권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엄청나게 많았을 뿐 아니라 근대 과학적 학문과 같은 구조를 이루어 지식의 타당성을 외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스스로 보장하고 독점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계적 학문의 결과로 지식의 대상인 아랍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항변할 목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사이드에 따르면 형성된 오리엔탈리즘이란 지식이나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무대였다. 그 위에는 아랍인들이 그들의 의상으로

9)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trans. Richard Nic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입고 등장하지만 유럽인들이 쓴 각본에 따라 그리고 유럽인들이 제작한 무대에서 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연극이 사실인가 사실의 왜곡인가 하는 것은 별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아랍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며 아랍인들의 자기 이해나 자기 주장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아랍인들에 대한 문화 담론을 임의로 생산하며 그런 의미에서 아랍인들은 영혼(靈魂)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오리엔탈리즘의 경우는 문화 담론의 정치에서 특이한 경우를 이룬다. 즉 갈등은 일방적으로 한 쪽은 입이 틀어 막힌 채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국제정치에서의 주체성과 지위는 서서히 박탈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현재 이슬람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에 집착하여 비합리적 국가전략을 추구해 왔고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로 전락한 것도 이러한 문화 담론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유럽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3세계 또는 원시사회들에 대한 문화 담론은 상당 부분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어떤 문화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박탈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문화의 문제는 문화 자체의 가치평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의 입으로 말해지느냐의 문제며 문화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상 문화에 대하여 말하고 해석하는 담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문화 담론의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선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 스스로 말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지적능력의 형성과 확보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에도 일제의 식민사관을 얼마나 극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은 실로 전쟁에 못지않은 것이다.

5. 소프트 파워와 문화 담론

국제정치에서 문화와 권력의 관계를 논하게 되면 1990년대 이후에는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10] 우선 나이의 소프트 파워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그의 논의는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중동 아랍권에 대한 정책 제안의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둘째,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의 패러다임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현실주의적 권력(power) 개념의 연장으로 제시하고 나아가서 비논리적 감각적인 과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남녀 관계의 은유(隱喩, metaphor)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나이로서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을 재편할 혁명적 의도는 없이 지키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국제정치에 폭력이나 완력을 매개로 하지 않는 권력, 힘이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이는 앞으로 의도치 않은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선 나이는 어떤 국가의 문화적 조건에 대하여 다른 나라가 매력을 느껴 선호(選好, preference)가 바뀌고 행위자가 스스로 자신의 국제정치 행위를 바꾼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설득이나 유인하는 언어를 통한 의사 관철은 소프트 파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이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의 권력 개념 또는 그의 말로 하드 파워(Hard Power)가 때리고 밀어내는 힘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끄는 힘, 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동력으로 행위자 자신의 의지가 바뀌는 '매력(attractiveness)'이라는 신비한 요소를 제시한다. 그러나 감정이나 욕망을

10)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NY: PublicAffairs, 2004).

매개로 한 국가의 국제정치 행위가 바뀐다는 것은 사실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의 정책에 관한 판단의 문제인 이상 감정적인 느낌보다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문화에 대한 존경(respect)에 따른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녀 관계의 은유는 소프트 파워를 생동감 있게 만들지만 상당 부분은 왜곡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제적인 문화의 역할이란 문화에 대한 직접 경험이라기보다는 담론의 확산에 이은 결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나이의 소프트 파워 논의에서 중대한 문제점은 그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적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전혀 다른 권력의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권력이란 어떤 나라가 다른 특정한 나라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전략적으로 행사하듯이 소프트 파워도 특정한 나라가 흡사 다른 특정한 나라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따라서 소프트 파워는 어떤 나라가 다른 특정한 나라에 대하여 '매력'을 발산하여 작용하는 것처럼 논하였으며 결국 미국은 중동 지역에 대하여 선전 활동,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다소 유치한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문화 및 총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른 나라가 매력을 느낀다면 이는 특정한 나라에만 해당하는 일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나라의 문화가 매력이 있다면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낄 것이고 그 원인은 그 나라가 주변의 어떤 나라를 '꼬시기' 위해서 '매력'을 발산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소프트 파워란 전략적인 상황에서 전략으로 작동하는 권력일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권력은 미는 힘 또는 때리는 힘이고 이것은 특정한 상대국에 제한 시켜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가 끄는 힘, 당기는 힘이라면 흡사 인력(引力, gravity)과 유사한 것이며 이는 특정한 물체만을 대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인력뿐만 아니라 자력(磁力)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하자면 소프트 파워라는 힘은 어떤 공간 전체에 작용하는 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11]

나아가서 소프트 파워의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소프트 파워의 주체가 특정 국가의 특정한 문화일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작동 과정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체의 개별성이 소프트 파워의 원천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서구 낭만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특정한 존재의 영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판단이 순수하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경우에는 그 주체의 보편적 성격에 좌우될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한 나라가 표방하는 가치, 원칙, 제도 등에 대한 판단일 것이며 이 경우 가치, 제도 등은 특정한 나라만의 속성, 개성일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논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대중 예술의 매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표방하고 추진해 온 가치와 원칙들의 문제이며 이들은 대부분 서구문명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문화 현상으로서의 소프트 파워란 어떤 특정한 나라가 특정한 나라에게 몰래 먹이는 '사랑의 묘약'의 힘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나라들 간에 존재하는 힘의 장(field of force)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자원에 대한 논의에도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

11) 최정운, "매력의 세계정치",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평화포럼 21 통권2호(2005, 여름), pp.26-43.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하드 파워와 구별하고 있으며 후자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한 권력이며 전자는 그와는 다른 문화적 자원에 따른 권력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명백히 다른 권력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여도 둘 간에는 상당한 연장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두 종류의 권력은 흔히 생각하듯이 대체적인 것인가? 대체적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문화국가'라는 국가의 종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드 파워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다시 말하면 하드 파워를 갖지 못한 나라가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는가? 답은 경험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나 국가의 어떤 특정한 종류의 자원에서 기인하는 다른 종류의 권력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란 어떤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의미에서 문화적이며 문화 담론과 연관된 현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하드 파워가 의지로 발휘하는 권력이라면 소프트 파워는 의지와는 관계없는, 어쩌면 의지로 발휘할 수도 없지만 그만 둘 수도 없는 권력인지 모른다. 소프트 파워가 인력처럼 작동하는 힘이라면 인력처럼 만들어지는, 물질(matter)과 질량 그 자체에서 나오는 힘일 것이다.

나이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는 은유의 선택으로 인하여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영감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그의 논의의 이론적인 면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소프트 파워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권력에 해당하며 또는 용어를 바꾸어 표현한다면 헤게모니의 구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구조적 권력은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행위자의 형성과 지위를 두고 다투어 결정짓는 문화 담론이 권력의 조건으로 작동하는 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6. 마치며

국제정치에서 문화의 정치적 의미는 일단 직접적으로 권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문화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어떤 민족, 종족이 자신들과 타집단의 문화, 삶의 방식에 대한 의식, 관심, 지식,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 담론을 통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부터 나타나고 작동해 온 것이며 이는 고대부터 나타난 '문명', '제국', '야만' 등의 언어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근대에 이르러 민족주의를 계기로 대규모로 확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라는 특정한 개념의 등장으로 나타났다기 보다는 평이하게 말하면 인민들의 삶의 형식과 내용으로 집단과 국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보편적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문화 담론을 통한 민족과 국가의 판단이 반드시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문화 집단의 편견이 작용하며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판단의 여러 기준에는 보편적 측면이 부재할 수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화 담론이 국제정치의 요인으로 작용해 온 방식은 권력과 이해(利害, interest)의 차원, 즉 통상적 의미에서의 국제정치라기보다는 그러한 차원의 근저를 이루는 존재(being, existence)의 차원이었다. 국제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격의 문제, 그리고 주체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적 가치의 주장과 갈등의 차원에서 작용해 온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경우는 문화가 직접적으로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지적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프트 파워는 전략적 의지나 이해로 작용하는 권력이 아니라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의 힘처럼 작용하는 권력인 것이다. 나이가

지적하는 소프트 파워의 계기로서의 매력(attractiveness)의 경우도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스토커를 불러 모으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소프트 파워 역시 국제정치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권력(power)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소프트 파워의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문화 담론이 작동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이한 주체의 존재의 수준이 인식되는 한에서 작용하는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는 힘의 일종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과 국가들 간의 존재 수준의 설정은 결코 타고난 생래적인 격의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피에르 부르디외가 계급의 격차에서 주장되는 존재의 가치의 차이는 결국 경제적 조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문화와 문화 담론의 격차는 결국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여러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드 파워가 약한 나라는 소프트 파워를 인정받고 활용할 수 없다. 말하자면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 특히 경제력이 근거가 되어 나타난 현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부르디외가 국내 사회의 경우에서 주장하듯이 하드 파워가 소프트 파워로 변환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전략적 선택과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능력과 존재적 가치의 구성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영역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 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화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도 결국은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정책의 결과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과 정책은 이른바 '외교 정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 민족과 국민의 삶의 수준과 형태 또는 질 전반과 연관된 포괄적인 전략과 정책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현실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 19세기 이후 러시아의 경우는 유럽 정치에서 야만국으로

규정되어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며 혁명을 겪은 것도 이러한 문화 담론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경우도 국제정치적 '협상의 대가'라고 하지만 인민들의 삶을 희생해 온 대가로 이루어진 '강성대국론'에 근거한 과도한 일방적인 하드 파워의 추구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야만과 '불량 국가'의 지위를 자초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민족이나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존재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화 정책은 외교정책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 이는 민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일차적으로 경제 정책에서 비롯하여 각종 사회정치적 제도의 발달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의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결국 야만의 길에 불과할 것이다. 나아가서 문화 정책이나 소프트 파워의 추구에서 외국에 대한 선전에 주력하는 정책은 주변국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야만 정책임에 분명하다. '문화 담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재현(representation)의 영역에 있음은 확실하지만 화장으로 본질을 가릴 수 없음은 남녀 간의 관계나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문화 담론이란 지성의 문제이며 이는 표현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표출되는 영역인 것이다.

문화 담론을 통한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고대의 지혜가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덕치(德治)를 추구하는 선왕(先王)은 온 천하 백성들의 어버이가 되어 천하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고대 문명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야말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 정치의 원리일 수 있는 것이다.

논문 접수일 4월 25일, 심사 완료일 6월 5일

Keywords: culture, international relations, Asia, nationalism, globalization, communities

Culture and Power

Jung-Woon Cho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would be complicated to find any logical junction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or power. This article, however, aims at exploring the link built up by the medium of "discourse." Since the late 18th century, the cultural discourse in the modern western Europe was formed and expanded with the rise of nationalism, which in turn had functioned as an essential factor of actors' ident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levant to the extent of acceptabl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level of actors' status. Based on this logic, this article makes a critical argument on Orientalism of E. Said and Soft Power of J. Nye. It might be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conflictual aspect of the cultural discours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ts function as a basis in terms of existence, rather than interest or power.

Keywords: cultural discourse, power, international politics, Orientalism, Soft Power, being/existence

Soft Power and the Lens of Gender

Euikyung Park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1990s, power and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has been diversified with the end of ideology.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ontents of diversified power, or "Soft Power." It is a new source of power to resolve the limits of rigid applicability that Hard Power has shown, which includes not only culture and value systems but also women's point of view. The lens of gender could examine the notion of war and security from different